익산 '농촌관광' 붐 주도

농촌 숙박·체험시설 정비… 10만명 유치 나서

익산시가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농촌 관광객 10만명 유치에 나선다.

특히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시설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농촌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2019년 70억원 규모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됐으며 그 일환으로 농촌관광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단장했다.

우선 익산방문의해를 맞아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했다. 수학여행, 가족, 동료, 친구, 연인이 즐길 수 있는 수요자 니즈에 맞게 농촌체험과 관광이 결합된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동부권에는 위치한 서동농촌테마공원은 시민들에게 피크닉 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광장과 농경체험관, 전통놀이광장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며, 동물체험관도 인기다.

서동농촌테마공원 동물체험관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총 300마리의 동물이 있으며, 아이들이 직접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며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2억8천8백만원을 투입해 자생식물원·체험공간·보타닉카페 조성, 에코캠핑장 조성 12개, 생태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식물학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동농촌테마공원 인근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미륵산권역을 포함해 교육농장, 식물원, 농촌민박 등 농촌관광 상품으로 연계 가능한 자원들이 둘러싸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 북부권 숙원 '어울림 파크골프장' 건립

7월 준공 예정, 파크골프 18홀·쉼터 등 조성

익산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울림 파크골프장'이 첫 삽을 떴다.

익산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울림 파크골프장'이 첫 삽을 떴다.

파크골프장은 주민들의 쾌적한 레저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파크골프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3일 용안면 칠목리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헌율 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파크골프 동호인, 북부권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용안매립장 유휴 부지를 활용해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 19억1천만원이 투입되며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2만2,686㎡ 부지에 천연잔디가 식재되는 파크골프 18홀, 관리동, 야외화장실 2개소, 쉼터 3개소 등이 설치된다.

그동안 북부권 주민들은 일대에 파크골프장이 없어 만경강 파크골프장을 이용해야 했다.

시는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지역사회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청년뜰, '군산 메이커 활성화' 참여자 모집

군산시 창업지원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뜰에서 '군산 메이커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산 메이커 활성화 프로그램은 메이커문화 확산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아이템 확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한다.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8회에 걸쳐 수제향작 창업교육과 시제품 제작 장비 활용교육으로 분야를 나눠 총 80명의 수강생에게 실습 위주 교육이 추진된다.

수제향작 창업교육은 가죽공예품 및 향기제품 제작 교육이 각 1회 운영되고, 레이저 커팅기, UV평판 프린터, 3D프린터, CNC고속가공기 장비 사용 패키지 교육을 비롯한 시제품 제작 교육이 총 6회 진행될 예정으로 우수 (예비)창업자의 역량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민(군산 내 대학 재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회차별 모집 공고를 통해 10명씩 선착순 모집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제향작 창업 아이디어 활성화 및 시제품 제작 능력 향상을 통해 우리 지역에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기자

ICT기술을 활용해 백제 역사를 생생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백제왕궁 박물관'이 다음달 개관한다.

'백제왕궁 박물관' 4월 개관

정헌율 시장, 막바지 조성 현장 행정 실시

ICT기술을 활용해 백제 역사를 생생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백제왕궁 박물관'이 다음달 개관한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22일 개관을 앞두고 박물관 조성 현장행정을 펼치며 막바지 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

세계유산 왕궁리유적의 보존관리 사업의 일환을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왕궁리유적 전시관 리모델링과 함께 가상체험관 증축을 통해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 개관될 전시관은 ICT 기술을 활용해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했다. 백제왕궁의 조성과정과 발굴된 문화재 등을 AR, VR, 홀로그램 등을 통해 생생하고, 흥미롭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물관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개관해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박물관 건축 공사는 지난해 말 완료됐고 현재 전시 컨텐츠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세계유산 왕궁리유적을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기자

익산역 주차난 해소 '역골 주차장' 완공

익산 송학동 역골 주차장이 완공되면서 KTX익산역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헌율 시장은 23일 완공된 주차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행정을 실시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송학동 85-5 일원에 공영주차장 172면을 조성해 무료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달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추후 대리주차 서비스도 실시해 KTX익산역 철도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인근에 역골 주차장과 함께 약 100면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동시 운영해 주차 수요분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도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창인동에 180면 규모의 남부주차장 주차타워를 조성해 노후화된 역세권 주거지역과 상권 회복에 나선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공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익산역 주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고위험가정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강화'

익산시는 고위험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23일 유관기관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복합적 문제를 가진 고위험가정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고위험가정이 발굴된 경우,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돌봄·정신질환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2022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23일 '2022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황철호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투자사업 추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실적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투자 사업을 위주로 논의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전 부서는 행정절차 적기 이행, 선금, 기성금 지급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와 적극적 토지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황철호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남현봉기자